

10월 31일 K-SDGs 거버넌스분야 집중포럼 속기

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)

- 오늘 논의하는 시간 가질 것

한국지속가능발전 센터 윤경효)

- 성과지표, 산출지표 혼재
- 미래지향적이며 광범위한 이슈와 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
- 4-6, 인터넷 활용 기술력이라든가 통계 데이터 문해력에 초점 필요(컴퓨터 인터넷 활용 성취도에 대한 평가, 그래프 통계 데이터 해석 능력)
- 10번, 참여 거버넌스 차원에서 고민 필요. 국가 및 지방정부 정부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(성, 연령, 장애여부 목표별 등 구별통계를 마련, 위원 구성 확대 필요)
- 차별에 대한 인식조사 필요(사회문화적 변화 견인 필요)
- 11-3, 지방 지속가능성평가 보고체계 구축 지자체 비율
- 도시계획 위원회,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시민사회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별 구분 필요
- 지방정부 일반회계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중 정기적 체크 필요
- 16번, 공익신고율 및 처리 현황 같은 것 보완 필요
- 16-6,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 비율
- 행정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구제장치, 정의장치 있는지 여부 점검 필요
- 16-7, 시민참여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정도 집중적 점검 필요
- 16-9, 정보접근성에 초점 필요. 언론자유지수,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청산 현황 및 연간 예산 규모 등 필요
- 16-1, 10번에서 이야기해서 중복
- 17번, 영향평가들 강화하는 방향 필요, K-SDGs 이행개선률 등
- 효과적인 공공 그 민간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에 대한 목표, 파트너십 사업 규모 대상별 사업분야별 그리고 연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비용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들 구체화시켜서 견인 가능

강원대학교 교수 장현식)

- 16-10, 코이카 연수프로그램 수, 프로젝트 수 추가
- 17-1, 송금 리미턴스 중요, UN SDGs에 송금액 있음
- 17-2, 다자무역 관련한 공무원 초청해서 경제 발전의 경험을 전수하는 등의 프로그램 수
- 17-3, 개도국 과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(개도국 과학관련 연구원과의 사업들)
- 17-5,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사업에 대한 일관성, 무상원조 회의를 통한 ODA 프로젝트 건수 등을 정책일관성 하부 단위로 볼 수 있을 듯
- 17-6, 코이카, 국제개발기관, 기부단체 등을 활용, 사업수 등 활용 가능

피스모모 문아영)

- 4-7, 시민사회의 다양한 교육 이행 평가 틀 고민 필요, 교육의 양과 질 평가방법 고민 필요(양과 질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)
- 16번, 사회적 실질적인 문제와 K-SDGs가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. 이에 대한 고민 필요.
- 거버넌스 작동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 간 상호작용이 발생해야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교류, 소통 부족
- 실제적인 삶의 수준들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둔 지표와 목표 필요

- 16-3, 국내 수준에서 국내아동에 대해서 16-2와 16-3이 보장되고 있는가, 어려운 듯
- 또한 교육목표와 연결되었을 때, 5번 성평등과 연계 했을 때 심각하게 낙오되어 있는 영역

한국국제개발연구소 강명옥)

- 기본적으로 UN-SDGs 유지해야 함
- 세부목표 관련한 수치에 대한 논의 필요
- 참여를 위한 플랫폼 필요
- 교육 필요(연계, 거버넌스, 계획 필요)

과학기술연구원 김지현)

- 한국의 세부 목표 달성, 이행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퍼포먼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
- 유엔의 다양한 지표를 국내 목표로 어떻게 끌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점 고려
-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목표이지만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간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 필요
- 데이터 확보 필요, 말아서 계속해서 팔로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 필요
-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어느 부처가 이것이 주관이 될 것이냐. 이런 고민이 계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배제될 가능성 큼
- 17-5, 국내에서 K-SDGs를 이행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ODA를 통해서 다른 나라 SDGs 이행을 도와주는 것들 관해 일관성을 의미, 측정이 어렵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

한국인권재단 이성훈)

- 16번, 디지털 얘기 부족, 16-12 디지털 인권보호 추가
- 정부부처에서 관련 없으면 지워지는 경우 있음
- 양적인 것하고 질적인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 부족
- SDGs를 만든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다름(맥락 중요)
- 지자체에서 시작하는, 아래로부터의 SDGs작업을 시작 필요
- 과학자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(과학 담론과 기술 담론 간 접점 필요)
-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보편의제인 점 활용 필요

플로어1

- 참여자 중 청년 비율 거의 없음
- 청년이 수혜를 받는 입장으로 목표를 수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현하고 달성하는 과정으로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지부터가 고민
- 청년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

플로어2

- 퀄리티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표 보완 필요
-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가 보조지표상 실행단계에서 고민 필요
- 14-6, 16-7,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고민 필요

플로어3

- 지자체가 노력을 시작하는데 K-SDGs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함
-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 간의 파트너십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 할 것이냐 등이 K-SDGs

에 포함 필요

- 글로벌 파트너십과 내셔널 단위에서 파트너십 그리고 로컬에서의 파트너십 정의를 고민하여 K-SDGs에 포함되었으면 함
- K-SDGs와 UN SDGs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가진 지방정부의 숫자가 지표가 되어야 함(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숫자 측정 가능)

플로어4

- 17.7, 각 부처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에 대한, 과정 참여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
- 실질적으로 파트너십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반영이 되는지 등 실질적 점검 필요

플로어5

-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 필요
- 이행을 위한 그 의사결정구조와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필요
- 17번,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필요
- 시민사회, 정부, 기업 각각 파트너십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반영 필요

플로어6

- SDGs이행 체제를 위한 입법 조치 궁금

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)

- 안이 법안소위로 넘어갈 예정

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호)

- 법을 통과시키면 최소한의 공론화장 개최 가능할 것을 기대
- 법안에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혁신에 대한 내용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음

플로어7

- 북한 SDGs의 이행기구 있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접근 필요
- 북한이 자신있는 국제적인 지표가 있을 것, 그것 반영 필요

플로어8

- 과학기술분야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

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)

-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는 프로세스는 기본원칙
-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먼저 치고 나가는 것 필요

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호)

- 시민사회 외에 많은 주체가 함께해야 함

플로어9

- 새로운 방식,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
- 운동성과 변혁적 방법 필요

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)

-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을 법제화하면 좋을 것

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지현)

- 조정 메커니즘 만드는 것 어려움, 특히 다부처의 경우
- 강력한 법제 규제 필요

한국인권재단 이성훈)

- SDGs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안을 만들어야 할 것
- 개별그룹이 아닌 종합적인 차원에서 분절화 되지않게 의견들을 참고해야 할 것

피스모모 문아영)

- 변형시켜 갈 가능성에 논의하는 것이 필요